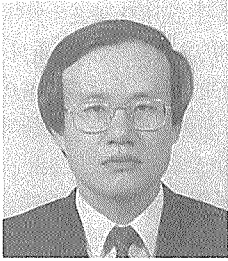


# 世界 經濟秩序 變化에의 對應



李 弘 圭

商工部 阿中東大洋洲通商課長

## 1. 序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적 중앙집권 계획경제체제와 미국이 주도하는 IMF, GATT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두가지 상이한 경제체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두 체제 모두에 있어 내부 경제적 요소간 갈등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세계경제는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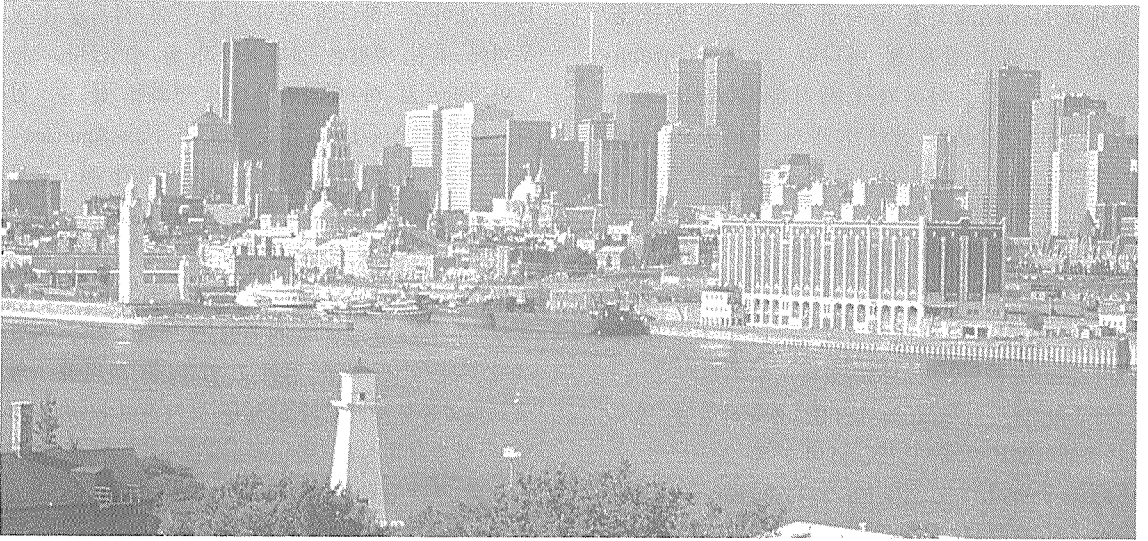
우선 표면화되는 현상만 보더라도 세계경제체제 면에서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의 근접현상, 경제Network화의 진전, 그리고 지역경제 측면에서 미국 및 일본의 경제력 변화, 유럽의 시장통합, 아·태 경제협력의 출발 등이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 밀접히 연관된 상태로 진전되면서 기본적으로 경제세력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질서 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질서를 변화시킬 요인이 되고 있다.

## 2. 世界經濟에 있어서의 主要變化

### 가.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수렴

일찌기 D. Bell이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이야기한 것처럼 양 경제체제에 질게 드리워졌던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걷히고, 소위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적 현상이 세계경제에 있어 뚜렷해지고 있다. Economist지의 최근 기사는 “도처에서 평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에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靑·紅” 갈등이라는 理念重視派 및 實用主義派의 주도세력 변화과정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어왔으나 최근과 같은 변화양상은 실로 革命的이라 할



수 있다. 黑猫白猫論을 전개한 등소평에 의한 중국의 개방과 함께 소련의 고르바체프에 의한 Perestroika 및 Glasnost. 이에 따른 동구권의 변화 물결은 전세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고르바체프가 “計劃경제나 市場경제나 하는 것은 人本的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라고 말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체제는 Marx가 말한 사회적 불평등을 치유하는데는 어느정도 성공하였지만 경쟁과 자율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에 비하여 생산력의 문제를 치유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판단에 도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공산주의 사회가 이러한 생산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편, 자본주의체제는 일찌기 러시아 “불세비키 혁명”을 보고난 이후 복지사회국가의 실현 등을 통해 자체내의 모순 교정 노력에 큰 진전을 보았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보수당과 사회당의 집권교체가 빈번히 이루어져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복지사회국가로의 이행은 현재 미국·유럽 등의 성숙산업사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생산성 증가의 한계성, 복지비용 지출에 따른 경제적 경직성의 확대 및 정부개입의 증가 등으로 경제체제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

는 현상도 목격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시장경제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의 상호 의존성을 제거시키는 물론 세계를 좀더 유사한 단일경제권화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상호의존성의 확대와 세계경제질서를 이념적에서 경제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서구의 다국적 기업이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 나. 世界經濟 Network化의 進展

세계경제의 Network화는 자본과 기술이동의 측면에서 분명히 목격되고 있을 뿐 아니라 A. Toppler가 “제3의 물결”로 표현한 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더욱 촉진되고 있다. 과거 200년을 끌어온 산업사회의 변화가 20~30년의 정보화사회의 변화와 맞먹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국간의 급격한 생산요소 능력의 변화는 자본과 기술이동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Network화에 있어 과거 세계경제의 자본 및 기술이동에 있어주역이 되어온 미국 및 영국의 역할은 아직 크다고 하지만 퇴조하는 추세에 있고 일본 및 서독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多國籍企業數의 변화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다.

다국적기업은 기업이라는 특질로 인해 세계

경제의 Network화를 급속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나아가서 세계화(Globalization) 차원에서 기업분업 전략을 항시 동태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세계를 하나의 연결고리화하고 있다.

### 다. 地域經濟力의 變化

가장 큰 지역경제력의 변화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오고 있으며 세계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근본요인이 되고 있다.

제 2차 대전이후 45%까지를 점유하였던 미국의 세계 GNP 비중이 1970년대 이후 20~25% 수준으로 하락되고 있으며(아직 세계정치·군사전략 측면에서는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1980년 이후 미국의 급속한 무역·재정적자 확대 및 미국의 생산성에 대한 회의는 P. Kennedy가 “강대국의 흥망”을論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고 있다. (S. Huntington은 미국의 自己更新의 天才性을 들어 이를 반박하지만) 특히 경제력과 “帝國의 과도신장”이라 하는 군사비 부담과의 상관관계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관련하여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반면, 일본경제의 급속한 부상은 현재 2조 6,000억불로서 세계 GNP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력 자체 뿐 아니라 일본경제가 가지고 있는 동태적 미래의 성장능력, 즉 효율적 사회경제 동원체제와 기술개발력으로 세계경제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추계에 따르면 2010년의 미국의 GNP는 '88년의 4조 5,000억불 수준에서 7조 9,000억불('86년 \$가치)로, 일본은 3조 7,000억불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3조 8,000억불, 소련은 2조9,000억불)

다음으로 주목할 변화는 EC시장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에서 보이고 있다. '92년 EC가 단일시장화 되어 EC의 주장처럼 시장확대에 따른 Synergy Effect에 힘입어 “유럽경제력의 옛 영광”을 되찾아갈 뿐 아니라 유럽내의 EFTA. 나아가서 COMECON과 연계된 복합적 단일시장화를 추진하게 될 때, 현재 GNP상 EC 3조 8,000억불, EFTA 6,500억불, COMECON 4,000억불인 구

모를 보아도 “하나의 유럽경제권”이 세계경제 및 무역에 미칠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태지역에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C의 Pax-Britanica, 20C의 Pax-Americana에 이어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센터가 되고 있는 Pax-Pacifica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선진국, NICs, 개도국이라는 3층적 지역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아·태지역은 다양성으로 인해 하나의 경제권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지만 세계 GNP의 53%를 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내교역의존도가 EC의 58%를 능가하여 63%에 달하는 상호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바, 금년 11월 아·태 경제협력 각료회의의 출범은 이러한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특히 전통과 권위에 대한 존경, 교육과 근면에 대한 신념을 내세우는 유교이념과 자유시장의 유인을 말하는 A. Smith의 “Invisible Hand”의 개념이 결합된 하나의 독특한 경제체제가 아시아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의존성에 동반되고 있는 체요인들, 즉 과도한 무역불균형, J-curve가 아니라 L-curve를 만들어 내고 있는 일본의 산업 기술력 및 “大東亞 共榮圈”에 대한 우려, EC와 연계된 미국의 세계전략 등이 지역적 갈등을 확대할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 3. 韓國의 能動的 對應

이러한 세계경제 정세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대응과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물론 변화에 대한 정확한 해석능력과 예견능력의 기반 위에서 이러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수용능력은 한 System의 발전에 있어 결정요인(Determinants)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① 외부적 변화 수용능력의 강화 ② 내부적 변화 반응능력의 제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부적 수용능력의 강화는 현재 세계경제의 변

화가 국제협력과 경쟁의 다원화·다양화를 촉진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 국제화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략적 사고하에서 한국의 세계경제 전략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따른 역할 범위의 확대는 우리가 국제경제에서 새로운 변화들에 좀더 민감해 질 수 밖에 없고 제한적이거나 우리의 목소리와 역할이 인정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를 이제는 주어지는 여건으로 보기보다는 변화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세계경제전략의 수립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국민적 합의형성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지만, 국제협력의 다원화·다각화를 위한 대외경제 전략이 종합적 관심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전략의 기초위에서 세부적 경제변화 현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의 국제협력 정신과 협력 Idea를 능동적으로 협력파트너에게 주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우리 경제체제의 외부 경

제변화에 반응하는 Sensivity 또는 Flexibility의 제고와 내부적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제활력의 유지이다. 경제체제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개입 등의 제반 경직성을 제거해 나가면서, 과거의 생산력 증대 위주의 경제구조로부터 소위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균형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미 노사문제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면서 엄정한 게임의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경제력 집중 등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지형평사회가 경제성장의 결실 없이는 이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에 국가재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소외계층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기보다는 슬기롭게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국민화합의 선진경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